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일 목요일 음 5월 18일 (10월)

기상정보

21-25°C
파고 0.5-1.5m
파고 1.0-2.0m
파고 1.0-2.0m
파고 1.0-2.0m
21-25°C
20-25°C

호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1°C, 낮 최고기온은 25°C로 예상된다. 아침부터 낮 사이 약한 비 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있겠으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20/25°C

모레 ☁️ 흐리고 비 21/28°C

월드뉴스

美 연방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트럼프 대통령 강한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제한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의회 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설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측의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 대법원은 행정명령이 출생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길고 거창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호**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

길은 어디론가 이어지며 어딘가로 향한다. 어느 길은 곧게 뻗고 어떤 길은 구불거리며, 어느 길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어떤 길은 조금 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길 위에서 어딘가로 향하고 누군가를 만난다. 그래서 길은 한 사회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지금 새로운 갈림길 앞에서 있다. 제주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만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관광객이 늘었음에도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경제 규

제주의 길

모가 커졌음에도 골목 상권은 활력을 잃었다. 더구나 개발이 이어지는 만큼 공동체는 조금씩 느슨해졌다.

좋은 길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곁에서 시작된다. 갈림길에 선 제주의 길은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길, 경제의 길, 그리고 공동체의 길이어야 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길은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가장 먼저 듣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현장은 행정이 답을 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답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민원이 줄어 드는 사회보다 역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 것처럼, 행정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도민의 시간을 아껴주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제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경제는 관광이라는 큰 나무 아래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큰 나무 하나만으로 숲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농업이 건강해야 식품산업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야 관광도 제주다운 경쟁력을 갖춘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지역경제가 순환하고, 청년이 머물러야 미래가 이어진다. 기본이 튼튼한 경제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관광과 농업과 미래산업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고, 도시와 농촌이 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만들어진다.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걸으며 다져지고, 시간이 흐르며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이 된다. 제주의 올레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나 가장 제주다운 길이다. 천천히 걷고, 풍경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빠름보다 여유를, 효율보다 관계를 가르쳐 준다. 제주의 미래도 그런 길이어야 한다. 조금한 성과를 쫓기보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기준으로 삼으며, 기본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주 공동체는 그 길 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돌담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좋은 길은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걷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민선 9기의 길도 그러했으면 한다. 결국 제주가 나아갈 길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사회를 지탱하는 힘, 일상 속 작은 실천



윤정우

제주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경위

자율방범대원들과 합동 순찰을 나가 관내를 돌리다 보면 쓰레기가 있던 곳은 다음 날 더 쌓여 있는 게 보인다. 한번 쓰레기가 버려진 장소는 ‘여기는 버리는 곳 인가보다’, ‘누군가 버린 곳이니 내 쓰레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한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곳을 중심으로 주변 전체에 범죄가 발생하고 결국 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돼 무법지대가 된 현상을 두고,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확립됐다.

개미구멍이 거대한 독을 무너뜨린다는 말처럼 튼튼한 사회도 무질서를 방치하면 결국 무너진다.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쌓이면 사회의 안전과 신뢰는 쉽게 흔들린다.

동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방치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 철두철미한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규범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다.

선진국일수록 기초질서는 ‘시민의 품격’의 잣대가 된다고 한다. 일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 미국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통해 그 품격을 지킨다.

이제 제주에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거나,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 하나가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야생동물 사육, 취미 아닌 ‘적법한 신고’ 먼저



박철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최근 크레스티드 게코, 비어드 드래곤 등 다양한 파충류를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래 야생동물 사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생동물의 책임 있는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허가 대상 야생생물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출·수입뿐 아니라 양도·양수·보관·폐사 시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해 야생동물을

무단 보관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 1차 위반에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육자와 영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도는 사육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기되거나 방류된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따라서 생명을 책임지는 반려인으로서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현재 서귀포시를 비롯한 행정에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처분이 유예되지만, 대상자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확인과 민원 신청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적법한 신고 절차를 지키는 것은 동물과 지역 생태계, 주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SINCE 1988 www.cheilssa.co.kr

제일사 양복점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sa.co.kr>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량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

신한은행

전농로 →

1중앙로

제일사

NAVER **제일사** 검색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의 물을 밀어냄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